

‘선거법 의결’·‘빈손 종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개혁위·사개혁위 활동 마감

선거제도 법사위 심사...총선 적용 사법개혁 법안 놓고 여야 충돌 우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혁위) 활동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된 가운데 양 특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개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지만, 사개혁위는 활동 기간이 연장된 두 달 동안 위원장 교체 이외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다만, 사개혁위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사법개혁 법안들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설치·검정 수사권 조정)이 소관 상임위인 정개혁위와 사개혁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갔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소관 상임위(최장 계류)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이란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혁위서 121일만에 의결됐다. 이는 상임위 심사기간 180일을 다 채운 경우 내년 4월 총선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뜻을 같이 해 표결처리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소수의견 무시”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지난 4월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90일을 다 채우고 본회의에 부의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경우 빠르면 오는 11월27일 표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주도한 여야 4당이 이 같은 과정을 거칠지는 미지수다.

사법개혁 법안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사

위 계류 기간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사위 고위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법개혁 법안들은 법사위 계류 기간 90일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법개혁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 4월29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나면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들은 정점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의사과는 사법개혁 법안들의 ‘법사위 패스’에 대한 법률 해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이상규 의원이라, 상임위 심사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치권은 상임위 심사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월 중순께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 인사청문회’ 사실상 무산

민주당 “가족청문회는 인권침해” 한국당 “증인 채택, 의혹 풀어야” 바른미래당 “부인·동생만 증인”

여야가 진통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3일 열기로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하면서 청문회가 무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가족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관철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 증인 채택·5~6일 청문회 실시’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수용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에 여야는 1일 ‘청문회 공방’만 주고받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야당의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요청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국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정신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주장”이라며 “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

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재차 ‘국민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가족 증인 채택에 합의하면 5~6일 또는 9~10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0차 회의에서 “핵심 증인들을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한다면 5~6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고, 오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일 하게 되면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정해진 법에 따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손학규 “안철수·유승민, 힘 합쳐야” 내년 총선 100석까지 가능 전망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이번 총선은 바른미래당이 60석을 넘어 70석, 아니 100석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내년 총선을 전망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선거법 개정안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따르면, 국민의당은 22석 증가해서 60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도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당의 상황에 대해 “당이 살아나고 있다”며 “임재훈 사무총장 취임 이후 지역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당원들이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 손 대표는 “안철수, 유승민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며 “우리에게 지워진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자. 한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세 사람 보다는 백사람이 함께 할 때 거대한 바위는 일순간에 뚫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위해 어떤 모욕도 참아내겠다고 마음먹고 속을 비운지 오래”라며 “(안철수·유승민이) 보수 대통합에 관심 없다면 바른미래당을 살리고 힘을 합치는 데 앞장서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뉴시스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은 여사가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며 환송인사들에게 손을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文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 시작

첫 순방지 태국 도착...미얀마·라오스 방문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첫 순방지인 태국에 도착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6일까지 태국·미얀마·라오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일정을 소화한다.

한국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은 2012년 이후 7

년 만이다. 미얀마 국민방문 역시 7년 만이며, 라오스 국민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이다.

메콩강 유역에 위치한 3개국은 우리 정부의 ‘신(新)남방정책’ 핵심 파트너로, 아세안 내 성장 잠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도착한 날 특별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한 뒤 이튿날인 2일 오전(이하 현지시간)부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3일 오전 두 번째 방문국인 미얀마를 향해 출국한다. 뉴시스

오늘 정기국회 개최...100일 대장정

‘조국, 선거법’ 정국에 개점휴업 예고 한국당 상임위 일정 거부 파행 우려

9월 정기국회가 2일 막을 올리고 100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는 513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심사하고 ‘법안 처리를 최저 수준 국회’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기 위한 국정감사도 실시된다.

정기국회 개최를 앞두고 국회 사무처는 오는 3~5일 혹은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가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 의사일정 협의의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일 “야당과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대화조차 못하고 있다”며 “추석 이후 9월 셋째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넷째 주 대정부질문을 하는 게 어떨겠냐는 의견 정도만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거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선거법 개정안의 정개혁위 통과를 강하게 규탄하며 모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정기국회는 문만 열어놓은 채 초반부터 파행 운영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 선거법 처리, 슈퍼 예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주요 쟁점 마다 여야 입장차가 큰데다 여야가 내년 총선도 앞두고 기싸움도 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기약 없는 정기국회 초반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당은 지난 24일부터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 의혹과 선거법 강행처리, 청와대의 미군기지 조기반환 등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지지층 결집에 매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며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오히려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쟁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여 올 정기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는 힘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가정에서 만나는 천로역정의 세계!
IPTV 및 케이블TV VOD 서비스 개시!

300여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SYNOPSIS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 당신의 이름은 크리스천

희망도, 기쁨도 없는 '멸망도시'에서 살아남은 '크리스천', 어느 날 발견한 한 권의 책에서 '천국도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웬지 모르게 책에서 눈을 떼 수 없던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찾아 모두가 인류하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뛰어, 크리스천! 천국에 닿을 때까지!”

여름성경학교 단체관람 문의 | ☎ 062.376.8500 (광주CBS 총무국) 수입/배급 CBS facebook.com/cbscinema TALK CBS시네마 천체관망가 전국 극장 절찬상영중